

소음·빛공해 없는 광주 만들기 팔 걸었다

교통소음지도 상반기 완성

시 전체 조명관리구역 지정

독성물질 입주민 공개·점검

광주시가 소음·빛 공해·실내 공기질 등 주요 생활환경 피해 및 불편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이들 생활환경 위해 요소는 단순 불편을 넘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해마다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돼 왔다.

광주시는 먼저 ‘소음 없는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확대 시행한다. 이는 소음 예방을 위해 민원이 빈번한 1~2개 지역을 선정해 마을공동체, 전문가들과 소음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소음 원별로 맞춤형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또 공장장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 공사 사전신고 사업장(지반 구명파기나

조성공사 등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기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건축공사 등)에 대해 실시간 소음을 측정 관리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광주시의 생활소음 민원은 매년 200건 내지 300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2400여 건의 소음피해가 접수됐다.

광주 전역에 대한 교통소음지도를 올 상반기에 완성해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소음발생을 예측하고 최적 저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또 불필요한 빛을 최소화해 좋은 빛 환경을 만들고,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시내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올 1월 1일부터 전면 관리에 들어갔다.

조명관리구역은 용도지역에 따라 4종으로 구분되며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등),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을 설치할 때에는 용도지역에 맞는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에 설치한 조명기구는 5년간의 유예기간 안에 개선하면 된다. 인공조명으로 인한

수면장애, 농작물피해 등과 같은 빛공해 민원이 광주에서만 해마다 400여 건 발생하고 있다.

발암 물질인 석면자재도 노후 등으로 폐기 처분될 때까지 꾸준한 추적 관찰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한다. 석면사용 공공건축물을 전수 조사해 관리하고,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은 석면폐기물 적정처리, 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감독한다.

실내 공기질 관리도 강화된다. 영화관, 의료기관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25개 군의 다중이용시설과 신축공동주택은 시공자재 등에 의한 실내 공기질 오염 여부를 관리해 시민 건강을 보호한다.

다중이용시설 1363곳에 대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 총부유세균 등을 사업자 스스로 측정·관리해 실내 환경, 친환경자재 사용 등을 유도하고,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올해 준공예정인 신축공동주택 19곳은 입주 전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

틸렌을 측정해 결과를 입주민에 공개토록 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린이집 보육실 478개소에 대해 환경안전관리 상태를 점검 관리한다. 환경표지대상 인증제품 사용여부와 시설물 표면의 부식 상태 등을 점검하고, 도로나 마감재의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이 0.1% 이하인지 등을 확인해 관리한다.

더불어 환경피해 관련 갈등에 대한 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중간소음은 ‘마을분쟁해결센터’, ‘이웃사이센터’ 등 중재기구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하고, 공사장 발생 소음, 진동에 의한 주택 피해 등은 ‘광주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한다.

환경분쟁조정은 대기·수질·토양오염, 소음·진동·악취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알선, 조정, 재정을 신청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CCTV 실시간 제공 긴급 상황 대처

광주시 스마트시티 사업 선정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내 6억원을 지원받는다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총사업비 12억원 을 투입해 CCTV통합관제센터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IOT·빅데이터 등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시민안전 5대 연계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시민안전 5대 연계 서비스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시 전역에 설치된 CC·TV 영상을 119와 112, 순찰차, 재난상황실 등에 제공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또한, 아동과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포함돼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이동통신사로부터 위치 정보를 제공받아 인근 CCTV영상을 경찰에 제공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방법·방재·교통 등 도시의 주요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계 관리돼 화재나 재난, 재해, 범죄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처로 시민 안전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김종열 광주시 재난예방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스마트시티 기반을 구축해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재난·재해가 없는 생명중심 사람중심의 안전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안전 거래

내달부터 시행

광주지역에서 오는 4월부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서울에서 시범 운영했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오는 4월부터 6대 광역시와 경기도에 우선 시행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착을 위해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293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이용방법과 실제 거래시 계약체결 방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또 3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시민들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과 편리성 등을 주민센터, 공공기관등을 통해 집중 홍보

할 계획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시민들이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이용해 온라인상으로 매매, 임대차 거래 등을 편리하게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다. 또한 전자서명과 공인인증 방식의 도입으로 거래의 안전성이 보장되고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 사기범죄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거래 신고가 처리됨으로써 공인중개사는 별도의 거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임차인은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나도 119소년단”...내달 20일까지 모집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4월20일까지 2017년도 119소년단을 모집한다.

119소년단은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다양한 안전체험관을 생활화하도록 함으로써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국민안전처에서 운영하는 단체다.

대상은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이며, 학교나 단체가 아니라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방법은 한국119소년단 홈페이지(www.young119.or.kr)에서 등록 신청하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 또는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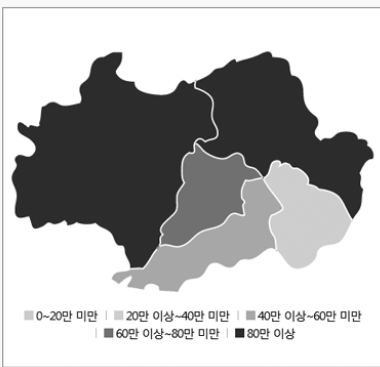
119소년단으로 선정되면 안전체험교

육과 119소방동요대회, 119안전뉴스경연대회 등 소방안전본부에서 주관하는 모든 소방안전 체험 및 행사에 우선 참여 기회가 제공되며, 학교 안에서 안전 행사를 캠프를 통해 어려서부터 안전습관을 생활화하도록 함으로써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국민안전처에서 운영하는 단체다.

대상은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이며, 학교나 단체가 아니라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방법은 한국119소년단 홈페이지(www.young119.or.kr)에서 등록 신청하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 또는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하면 된다.

119소년단으로 선정되면 안전체험교

동네 온실가스, 궁금하면 클릭하세요



0~20만 미만 20만 이상~40만 미만 40만 이상~60만 미만 60만 이상~80만 미만 80만 이상

북구 온실가스 총 배출현황

총 배출량 1위(965,380 tCO₂eq.)

전년대비 8.0% ↑ 증가

1인당 배출량 3위(2.14 tCO₂eq./인)

전년대비 1.4% ↑ 증가

우리동네 상세보기 >

우리 아파트 상세보기 >

‘온실가스정보센터’ 개설

광주시와 (재)국제기후환경센터는 온실가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 내 효과적인 감축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동네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우리동네 온실가스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설했다.

홈페이지는 시민들에게 온실가스에 대한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자 4개월간의 준비 작업과 시범 운영을 통해 지난 1일자로 정식으로 선보였다.

홈페이지는 시민들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개설됐으며, 광주시의 지역별(동별, 아파트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온실가스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깨끗한 풍영정천서 봄맞이 2일 오전 풍영정천환경모니터링단이 풍영정천 하남대교에서 수질검사와 함께 천변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풍영정천환경모니터링단 제공〉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

경매/매매

풍암동 중심 상가



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격 1,650,000,000

서구 동천동 공장 창고



대지 370평
건물 97평

최저가 681,578,000
감정가 1,217,104,900

서구 매월동 상가 사무실



대지 261평
건물 458평

최저가 1,450,531,000
최고가 2,072,187,000

문화의전당 옆 오피스텔



대지 215평
건물 467평

최저가 1,492,071,000
감정가 2,131,071,000

중흥동 상업지역 토지



대지 612평

최저가 2,126,985,000
감정가 3,038,985,000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대지 91평
건물 340평

최저가 425,000,000
최고가 948,794,100

화정동 상가사무실



대지 48평
건물 160평

최저가 382,407,650
감정가 382,407,650

운암동 기전빌라



22평형 6가구 (수역정 아주동읍)
대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대당 용적 6,000만원 월세45만원

제일오피스텔 29평



감정가격 9,000만원
금 매매 6,200만원
보증금 500만 월세 25~40만원

010-8559-8905

이용국 팀장

공인중개사 부동산경.공매컨설팅

초보자 00명 모집 062)232-9994

010-3070-2147

유 여사